

고창군 3500억 리조트 투자 유치

심원면 일대 레저 인프라 구축 용평리조트와 투자협약 체결 군, 전담팀 조직 인허가 등 지원 서해안권 최고 관광도시 도약 기대

고창군이 민선 이후 최대 단일사업 투자로 3500억원 규모의 용평리조트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역 관광산업이 대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심덕섭 군수와 고창군은 이번 투자협약을 발판 삼아 서해안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법령검토,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내 끝저의 용평리조트는 고창군과 3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해안지역인 심원면 일대에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레저시설 등을 갖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서해안권에서 해안가를 긴 관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창군으로서는 지역 관광산업의 틀을 바꿀 만한 민선 이후 최대 투자사업이기도 하다.

조성사업 추진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신규 일자

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 협약식

2022. 12. 28. (수) 13:30 5층 대회의실



심덕섭(가운데 왼쪽) 고창군수와 신달순 용평호텔앤리조트 대표 등이 투자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 창출, 주변 상권형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리조트 건설 이후 중소규모의 민간투자 시설까지 모여들어 단지화된다면 명실상부한 고창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군은 용평리조트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

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전담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모두 보유한 고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

21곳에 수도요금 30% 보조 등

남원시가 관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가격과 맛·품질,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남원시는 지난해 지정된 업소 21곳과 요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는 ▲상수도 요금 30% 보조 지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 개선사업 참여 시 지정업소가 산정 확대 ▲돌출간판 및 현판 정비 ▲착한가격 매뉴얼 신규 제작 등이다.

시는 인센티브 지원 확대 이외에도 매월 SNS('남원경제'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고객의 리뷰가 가장 좋은 '이달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각종 홍보채널(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및 남원시 홈페이지, 남원시 공식 SNS 등)으로 업소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지원 사업 이의 착한가격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위생방역소독, 음식



물 쓰레기 집, 위생용품 등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경영주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힘쓸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 안정에 동참해 준 착한가격업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착한가격업소가 생겨나 시민들이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10명 미만 학교 폐지...적정규모학교 추진

전북교육청 기본계획 마련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로드맵이 나왔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환경개선, 택지개발 도심지역 학교 과밀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마련에 나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각 교육지원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즉시 추진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적정규모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은 ▲분교 및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신설 등이다.

분교 및 분교장 폐지는 기본적으로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 1교 초등학교(지역중심학교)와 통합운영 학교는 전교생이 10명 미만이어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통합운영학교 역시 희망학교가 그 대상이다. 학교 이전·신설의 경우 개발지구 등 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교 이전·신설은 학교별 특성, 인구 및 학교분포, 통학거리, 학교 선호도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필요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분교장 개편은 학생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년 이상 장기 휴교는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일자리 창출' 열띤 토론

정읍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정읍시가 민선 8기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읍시는 목표와 대책을 제시해 일자리 공약사항을 조기에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했던 '정읍시 민선 8기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정읍시 일자리 특성과 인구정책 성과분석을 보고하고 저출산 대응,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등 총 4개 분야 15개 사업이 제시됐고 이를 통한 관련 부서장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과 발굴된 사업들은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정읍시 취업중개센터 운영, 스메이커 공예창작 지원사업, 청년 창업지원, 청년·신종년 취업 지원,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정읍시 일자리정책을 총괄 추진하게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수제화 교육생 신발 200켤레 '아름다운 기부'



정읍시 슈메이커 양성사업

아름다운가게, 수익금 이웃 돕기

정읍시 슈메이커 양성사업 교육생들이 지난 26일 '아름다운가게'에 수제화 200켤레를 전달했다. <사진>

기탁한 수제화는 미래의 수제화 장인을 꿈꾸는 20여명의 교육생이 1대1 도제 방식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만든 제품이다. 교육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신사화, 슬리퍼, 운동화 등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화를 제작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받은 수제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소외계층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청년들에게 어려운 취업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메이커센터'를 운영하며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제화 기능인의 노령화로 위기에 처한 수제화 사업을 지방의 저렴한 땅과 인력 공급을 통해 비교우위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읍 특색의 수제화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노후 공동주택단지 보수공사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접수

고창군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 편의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로 건물도색,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옹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올해 총 1억6000만원을 들여 8개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10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동광지점, 각학지점

